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 끝까지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과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이제 네가 자녀 되었으니까 믿지 않을 때 사랑하고 똑같이 살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할지어다. 그랬어요. 출애굽 할 때도 애굽의 종 되어서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애굽의 삶을 살던 이스라엘 사람을 전적 은혜로 구원해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또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이방인 같이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항상 우리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만 기억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된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항상 너는 택한 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해라.** 신약에도 보시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유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지 너희가 알아라. 그거 알수록 우리가 그 은혜와 힘으로 아,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받는 자구나 이런 구원받은 자구나. 이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구별돼야 해요. 그래서 성도라는 건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다는 것은 어둠의 세계, 사단의 권세 아래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까 구별되게 하라. 이걸 보고 거듭난 삶이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둘째 우리가 거듭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구원은 받는 건 같은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영광이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어떻게 믿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고 복음 전도자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상급이 각각 달라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내가 선택한 싸움 다 싸우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또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계산할 날이 있어요.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절제하며 또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헌신하고 순종하고, 주를 위해서 산 사람하고 대강대강 산 사람하고 어떻게 똑 같겠습니까? 똑 같지 않습니다.

17절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으니 얼마나 다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성도는 진실한 신앙,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삶도 아픔도, 고난도, 다름도 없는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나라.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 우상 숭배하고 미신하고 쓸모없는 일 하는 죄를 짓는 그걸 보고 헛된 행실, 망연된 행실이라...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아..** 대속. 노예들은 노예 증서를 찢기 위해서는 대금을 주고 이제 노예 끝. 우리 조선시대도 종 문서 찢잖아요. 돈 주고. 이렇듯이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종의 노예 문서를 찢을 때는 돈이나 은이나 금으로 세상의 것으로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속받은 건 세상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그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흙 없고 점 없는.. 흙은 선천적으로 죄가 하나도 없는 거. 우리 식으로 말하면 원죄가 없는 거. 점이 없다. 후천적 죄가 없는 거다. 그리스도는 원죄도 없으시고 **죄의 삶은 사망이라**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계시는 거 보니까 그는 점도 흙도 없으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우리 대신 죽어야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에게 나셔서... 왜 그래야 되느냐? 아담의 후손이면 다 원죄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 받지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6, 7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다. 는 말은 양의 특징이 눈이 어둡대요. 그래 양이 리더 되는 양을 따라 가야 되는데 정신 안 차리고 다른 곳을 보다가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우리가 더 양 같아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따라 가야 되는데, 세상을 보다가 넘어가고 좋은 거 보다가 넘어가 버리고 자꾸 죄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다 열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는 다시는 양 잡을 필요 없고 믿기만 하면 해방 받는 줄, 자녀 되는

줄, 자녀들은 권세가 있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치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유월절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이다.**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죄에서 해방받습니다. 마지막에 마귀는 가룟 유다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구원은 끝이다. 인류 구원은 끝이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지혜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깨뜨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니라.** 마귀가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가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피에 있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말은 생명을 대신하셨다. 이래야만 거기서 빠져나갑니다. 죄의 삯은 사망,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 이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죄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야만 거기서 우리가 속량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이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대속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런 구원의 은혜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의 말씀은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이건 프로스라는 말입니다. 가장 귀하고 영원한 일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사세요. 여러분, 누가 바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바울보다 신분이 더 좋고, 누가 더 의롭게 산 사람이 있어요? 더 바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것 때문에 매 맞고 핍박받고 굶주리고 고난받고 순교하기까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은 그렇게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고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을 받아요. 이거 알려줘야 돼요. 초청을 해요. 그리고 복음 전해서 알려야 해요, 이거 우리 사명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이 창세전에 우리에게 준비된 예비 된 복음이에요. 영원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믿음과 소망은 아무도 흔들지 못합니다. 빼앗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은 잠깐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 속을 뿐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진실한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거둬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은 이 복음은 어느 시대에 있다가 없어질 복음이 아니요. 창세전부터 아담이 믿어서 구원받고, 노아가 믿어서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믿어서 구원받고, 다윗이 믿어서 구원받고, 초대교회 바울이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고,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믿어서 구원받을 복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말은** 세상 것은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변하지만 이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복음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아시는 그 복음, 은과 금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신 그 복음,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만 믿으면 나쁜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니라.** 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 특별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을 다해서 전도하고 초청하고 복음 듣게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일에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 나눔 질문1 : 말씀에 관련된 자신의 상황을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2 :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회개하게 된 부분, 도전이나 깨닫게 된 부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 나눔 질문3 : 말씀을 통해 어떤 변화를 다짐하게 되었는지 나눠주세요!

온누리교회 055)386-0091